

현실부정의 극복 위한 몸부림

장석주 시집 「완전주의자의 꿈」

얼마전 우연히 장석주의 시집 「완전주의자의 꿈」을 대할 기회가 있었다. 팽팽한 긴장과 그 속에서 구현되는 자유가 묘하게 어우러진 그의 시들은, 현실에 대해 혹은 객관적 존재에 관해 불감증을 앓고 있던 내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전체성〉이 파괴된 세계 속에서 유토피아적 전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완전주의자가 어떻게 그 균열과 파괴를 딛고 일어서서 세계와 자아, 현실과 전망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려고 했는가, 그 외로운 혼의 열망과 지향의 고통스러운 궤적에 대한 너희들의 넓고 깊은 이해를 기대하고 싶다.”

장석주가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이 책의 서문에서 이처럼 밝히고 있듯이, 그의 시는 불완전한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회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시인의 인식 속에 포착된 세계란 어둡고 치열한 것일 수밖에 없다.

밤마다 잠을 유보하고 / 자정에만 나오는 수도물을 받는다. / 선 목소리로 기침을 하듯 가끔 녹물 냄새나는 물을 토해 놓고 / 수도꼭지는 끝끝내 인색하다.

- 「자정의 물받기」 중에서

이처럼 그의 시세계는 암흑이지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를 시인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의 현실인식은 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고뇌 역시 시를 통한 완전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힘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방향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써야 하

는, 삶과 시의 괴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의 삶, 하지만 이러한 삶을 떠날 수 없는 채 시도 포기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그의 비극적 의식이 자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을 조롱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는 완전히 절망해버리거나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제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시여, / 나는 아무 물이나 힘없이 붓고하는 모래탑입니까? / 이제 불켜진 집에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 고통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 적막한 황혼의 하나님이어.

- 「완전주의자의 꿈」

위 시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시인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도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으려는 의지의 몸짓들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를 둘러싼 어둠의 세계로부터 빛이 있는 밝음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바로 이것이 완전주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현실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참으로 둔감할 때가 많다. 그러한 것들을 단지 일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석주시인이 보여주는 완전주의자의 모습, 상황의 인식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정수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동 144-102 · 쌍용그룹 홍보실

아시아의 반핵평화운동

표문태 편저 「아시아를 비핵지대로」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래, 1946년부터 84년까지 200회를 뿔친 우도는 원수소 핵무기폭탄이 실험용으로 태평양의 바다와 작은 섬들에 뿌려졌다.

그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에 들어와 ‘반핵평화운동’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전세계적 관심사인 핵문제를 핵전쟁의 발발지였던 아시아와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1부인 「아시아의 반핵평화운동」은 1954년 마샬군도 비키니섬에서 있었던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인한 피해를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태평양 일대에 있는 마샬군도의 비키니, 폴리네시아군도의 판가트우파 등의 섬들은 ‘전쟁억지력을 위한 관념적 핵전쟁’이란 명목으로 희생된 곳이다. 필리핀의 경우, 반핵운동은 1975년 ‘새 필리핀여성회’가 조직된 후 농촌여성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간섭 배제와 민족주권회복의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었다. 특히 벨라루지지역의 주민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비핵헌법」을 끝까지 수호하는 반핵운동을 벌였다.

2부 「분노의 태평양」은 1984년 일본의 ‘100인 반핵위원회’가 세계적인 반핵운동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국가반핵지회회의’의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반핵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도 결코 제외될 수 없는 지역이다. 미국은 1975년 슬레진저 국방장관이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한 후, 이듬해 핵전략적 의미를 지닌 핵공격기가 전술핵과 함께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해 6월 이후 정계에서도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미국핵무기 철폐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또한 미소 양국은 지난해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배치한 중·단거리 핵미사일 제거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협정은 세계의 안보가 미·소 양국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특히 아시아 전체지역에는 절대적인 것임을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핵무기의 폐기는 전세계평화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제거를 희망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은 각국의 반핵평화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반핵운동이 세계인류, 즉 우리의 일임을 실감토록 한다. 반핵운동이 결코 소수가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가 행해야 할 절박한 문제임도 상기시켜 준다. 핵의 제거는 반미나 친소나 하는 논란을 떠나 전세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 책의 의의라 볼 수 있다.

정진숙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18-27. 이화여대 행정학과 3학년

현대도덕철학

도덕철학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추상적인 윤리학과 실천적인 문제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누구나 도덕철학이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의 도덕철학—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224면 / 3,000원
D.D.라파엘 지음/김영철, 김우영 옮김

10년 동안 꾸준히 철학책만 출판해온
도서출판서광사 서울 서대문구 용두 2동 119-46
전화: 924-6161(대)

기독교사상의 한국토착화를 다룬 평론집

韓國文學과 基督教思想

● 李仁福著 ●

신소설의 작가 안국선의 유교적 시각과 이광수의 불교적 기독교사상을 비롯하여 김동인, 전영택, 심훈, 김동리, 윤동주, 김현승, 최민순, 김요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사상이 우리 문학 속에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되어 왔는가를 문인들의 생애와 사상과 작품을 통해 조감하였다.
국판 · 306면 · 정가 5,000원

도서출판 又新社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2-22
☎ 333-6757~8

은혼의 해에 내놓는 부부교수에세이

사랑과은총의 세월

● 沈在箕·李仁福著 ●

서울대 국어학자 심재기 교수와 숙대 국문학자 이인복 교수의 결혼 25주년을 기념하여 가족에 대한 에세이만을 묶어 세상에 내놓은 사랑과 은총의 이야기. 가톨릭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부부교수의 신앙과 삶과 사회와 가정에 대하여 진솔하게 담겨 있다.
국판 · 260면 · 정가 3,000원

도서출판 又新社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2-22
☎ 333-6757~8

색채심리

파버·비렌著
金化中교수譯

- 색채가 상품판매를 좌우한다
- 색채가 작업능률을 좌우한다
- 색채가 음식맛을 좌우한다
- 색채가 사고발생률을 좌우한다

값 4,800원

東國出版社